

감비아 한병희 선교사 선교서신

2021년 4월 20일

감비아 한병희 김연희 선교사

이곳에는 이제 더위가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면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추위로 부담스러웠던 고국에서의 삶을 상기하는 것이지요. 힘들게 살 때에 그렇게 겨울이 싫었던 것을 생각하며 더운 이곳의 일기로 위로를 얻습니다.

감비아 장로회 2차 총회

감비아 장로회 총회가 갖추어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총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현지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섬겨 왔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제 2회 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통하여 주의 일꾼들이 여러 일들을 돌보며 교회들을 섬겼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 제 2기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였고 모모두 칸테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게 되었습니다. 칸테 목사님은 공무원이 되어 일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금번에 총회장이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일과 총회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모두 칸테 목사님을 총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감비아 복음화를 위해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

국제학교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에 학교 건물 보수공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지붕 슬라브 공사가 부실하여 우기철에는 교실에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 교실의 자재들이 망가지고, 분위기도 안정되지 못하여 분위기가 편치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거나, 2층을 올리고 슬라브가 아닌 튼튼한 골함석 지붕을 올려야 합니다. 2층을 올리게 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찬송가 발간

선교부의 통일된 찬송가를 필요로 하여 오랫동안 준비를 하였고 한국에서 인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감비아에 들어 오는 컨테이너에 책을 가져 오기만 하면 되지요. 이미 선적 작업까지 마쳐져 감비아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는 5월 하순경에는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찬양을 담아 튼튼하게 제본된 책이니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도와 주셨는데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의 예배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모아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수케바 집의 화재

울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한 것은 무수케바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찾아갔을 때는 집들이 다 타서 남아 있는 잔 불과 연기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집에서부터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 함께 붙어 있던 집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남편인 카람모는 세네갈에서 일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고 도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 타서 형체만 있는 시커먼 집 안을 바라보니 세상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허전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가정을 돕기 위해 여러 손길이 함께 해 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현재는 선교부에 머물며 새로 들어가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가정이 새롭게 정착하여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선교사

김현희 선교사는 선교부의 살림을 돌보며 입양공동체 자녀들을 돌보는 일과 유치원에서 교사들을 지도하며 3 곳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그리고 개척한 교회들에서 부녀자들과의 성경공부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등 다소 분주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일은 부녀자들과의 성경공부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진리를 깨달아 믿음을 얻게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만남과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이들이 복음을 깨달아 믿음을 얻고 기도하는 입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니 우리의 소망이 더해집니다.

교회의 재연합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던 중에 시작되었던 바폴로토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도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교회당을 세워 예배처소로 견고히 하기를 원하였으나 본 교회인 열린문 교회의 성도들이 분산되어 연합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부활주일을 기하여 다시 온 교우들이 열린문 교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 곳에 모여 드리게 되지만 시작된 성경공부는 매 수요일마다 방문하여 교제와 성경공부를 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후에라도 모임의 제약이 있으면 다시 이곳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헌신된 사역자가 있어 사역이 가능할 때에도 이 곳을 우선하여 개척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한 동안 떨어져 있던 교우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메리 2매조 자매

메리는 존 음발로 형제와 부부가 되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건강한 모습이었던 메리가 말라가고 있고, 때로는 홀로 집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유 모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불신 가정에서 성장한 자매로서 어머니가 평소에 주술사의 힘을 입어 살고 있던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성장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웃 나라에 있는 주술사가 준 영물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사후에 이 영물을 본래의 처소에 돌려 놓지 않아 귀신이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메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메리 자매는 주님을 믿는 자매임에도 토속 신앙과 악령의 활동을 믿음으로 다스리지를 못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령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매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계심을 나눕니다.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악령을 대적하여 자유 할 수 있도록 부군과 메리 자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교단 총회의 새 회장단과 선교부의 리더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2.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메리와 교우들이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3. 국제학교의 증축 공사를 위하여
4. 감비아의 교우들과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조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희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감비아에서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 드림

(이메일: gambiwam@gmail.com / 카카오톡: Gambiwam2684)